

[주]고려비엔피

충남·전북 농업마이스터대학생 본사 생산시설
현장견학



지난 5월 30일과 6월 13일에 충남 농업마이스터대학과 전북 농업마이스터대학 수강생들이 (주)고려비엔피(대표이사 송기연) 공장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 2세 및 컨설턴트로 구성된 마이스터대학 과정 수강생들은 (주)고려비엔피의 동물약품 생산시설을 견학한 후, 국내 동물약품제조를 위한 좋은 시설이 있고 수출까지 하여 국위선양을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앞으로는 품질 좋은 국산 백신 및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많이 하여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주)고려비엔피는 축산 관련 농가, 단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KBNP 생산시설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신 등 동물약품 생산시설을 견학하고자 하는 단체는 홍보담당 (☎ 070-7433-1047, 담당 : 정다인)에게 연락하면 견학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천하제일사료

천안연암대학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천하제일사료(총괄사장 윤하운)는 지난 5월 23일 천안연암대학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향후 상호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협약했다.

또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을 통한 축종별 사양시험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천안연암 대학의 축산전문 교육시설과 우수 교수진 및 천하제일사료 중앙 연구소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국내 축산 농가와 축산 2세 교육은 물론 천하제일사료의 영업 인력과 해외사업부 축산 인력의 교육을 통한 축산전문 인력 양성 등 산학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축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천안연암대학생의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 산학협력을 통하여 미래 축산인재 육성에 힘쓰고 동시에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

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 외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친선교류와 장학사업, 학술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부그룹

창립 44주년 기념식 개최



서부사료(주)·(주)트루라이프(대표이사 회장 정세진, 이하 서부그룹)는 지난 6월 13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변화된 오늘, 빛나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기념식은 전옥표 목사의 창립기념 예배를 시작으로 창립 44주년 특별 영상전, 장기근속자 포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창립기념식에는 경영지원본부 이석호 본부장 등 10년 이상 근무한 구성원 총 2명에게 장기 근속상을 수여하고, 탁월한 대고객 서비스로 모범이 된 이치수 기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는 44년 전 서부그룹을

세우고 평생 대한민국의 축산업 발전에 헌신한 故정규봉 창업주의 창업 정신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구성원들은 ‘믿음·근면·검소·온유·정직’을 강조했던 창업주의 철학을 공유하고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는 서부 그룹의 비전을 되새겼다.

정세진 회장은 “1969년 정규봉 회장께서 서부사료를 세우신 이래로 많은 시련과 좌절의 순간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문제들을 이겨내며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잠재력을 축적해왔다”고 회고한 뒤 “현재 우리는 시련과 역경의 긴 터널을 지나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도약하는 길목에 서 있다”며 “앞으로 식품사업의 건강 컨설팅 활동의 확산, 해외 농축산 컨설팅사업의 활성화 및 구성원들의 인적자원 일류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44주년을 맞이하여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비전을 향해 다시 한 번 전진하자”고 덧붙였다.

이어진 2부 순서 ‘창립 44주년 기념 연회’에서는 서부그룹 모든 구성원들이 축배를 들며 앞으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부그룹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서부사료(주), 4회 연속 HACCP 무결함 인증

서부사료(주)가 4회 연속 HACCP 무결함 인증을 획득했다.

서부사료는 최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서 실시한 HACCP 심사에서 무결함 인증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6년 서부사료가 HACCP 최초 인증을 받은 이래 2008년, 2011년, 2012년에 이어 4회 연속 무결함 인증을 획



득한 것으로 명실상부한 ‘청정공장’임을 당당히 입증한 것이다.

‘도심 속 친환경 공장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부사료는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공장 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도색, 녹화사업, 최첨단 플라즈마(Plasma) 설비 및 사료공장 최초 물분사 탈취하우스 설비 구축, 소음 저감을 위한 노후 설비 교체 등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역 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매월 2회 전 사원이 참여하는 ‘클린데이(Clean day)’ 실시와 현장 담당자별 ‘일 공장장 제도’ 운영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부사료 원재곤 전무는 “4회 연속 HACCP 무결함 인증으로 고객 여러분께 안전하고 깨끗한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서부사료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무결점 명품 사료 생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사료는 지난 2009년 인천광역시로부터 ‘Eco Friendly Zone(친환경 구역)’ 조성

대한 감사패 수상, 2011년 ‘악취 관리 선진화 사례’ 선정 환경부 장관 표창 등 도심 속 친환경 공장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쌔벳(주)

‘VIV 터키 2013 국제 박람회’ 참가



한국쌔벳(주)(대표이사 김달중)는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VIV 터키 2013 국제 박람회에 참가해 많은 바이어들과 교류했으며, 중동지역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264곳의 업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 참여 업체수는 한국쌔벳(주)를 포함해 3곳이었다.

한국쌔벳(주)는 지난 VIV 방콕, 러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로 한국 동물약품의 품질과 위상을 알리겠다고 큰 다짐을 했으며, 수출 관련해 후발주자이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도 있듯이 수출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두산생물자원

'7-STEPS' 교육 실시



두산생물자원(대표이사 윤영호) 영업부문은 지난 6월 10일 경기도 용인 소재 흥국생명 연수원에서 6월 영업회의를 진행했다.

본 일정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7-STEPS' (Strategic Thinking Enhancement through Problem Solving) 문제해결 방법론에 기반한 전략적 사고역량을 갖춘 두산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임을 의미하고 있다.

두산생물자원 DFC(영업사원)는 축종별 조를 구성하여 시장상황, 축산업계 전망, 농가현황을 인지하고 판매상승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두산생물자원은 축산농가를 위하고 축산전문 기업으로서 나아가야 할 역할을 고민하며 업계 발전의 선두주자로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FEED 입문과정' 개설

두산생물자원은 지난 6월 10일 사내직원 내 축산 비전공자를 위한 'Feed 입문과정'을 개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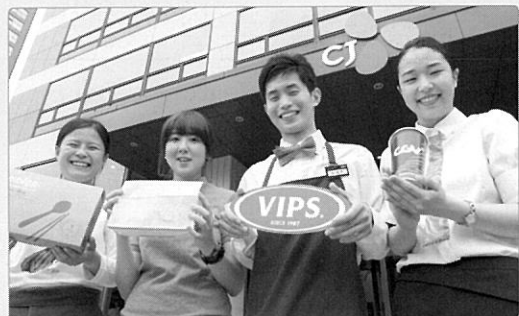


본 과정은 사내 축산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축산업에 대한 기본지식과 이해도를 확대시키고자 개설된 과정으로 축종별 전문지식과 채권, 재무지식, Sales공통 Skill로 구성되어 총 128시간으로 11월까지 제 1기가 예정되어 있다.

강사는 축종별 PM과 각 부서 관리자급 이상으로 그룹 Faculty과정을 수료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강의와 Self학습, PT, Test를 통해 전문지식 함양에 정진하게 될 것이다.

CJ그룹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앞장선다



CJ그룹(회장 이재현)이 직영 아르바이트 1만 5천여명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CJ그룹은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을 없애고 4대 보험, 각종 수당, 복리후생 정책 등과 함께 학자금 지원, 해외 연수 등 성장 지원까지 책임지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는 지난 6월 4일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후 재계 화두로 떠오른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화답하는 대기업 차원의 첫 공식 발표로 주목된다.

CJ그룹은 최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한데 이어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전환을 발표하며 재계 고용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CJ그룹의 서비스 전문 계열사인 CJ푸드빌, CJ CGV, CJ올리브영에 소속된 15,271명(2013년 6월 현재)의 직영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전원 계약기간의 제한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점까지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

4대보험,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정규직원에게 준하는 처우와 함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도 마련했다. 기존 우수사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장학금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재직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서비스 전문 교육, 해외 연수 등 성장지원 정책과 함께 회사별로 차별화된 복리후생 정책을 제공해 젊은 청년들에게 '반듯하고 비전이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CJ그룹은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직장생활 속에서 계속 꿈을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수 아르바이트 직원 20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대학

생 아르바이트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 동안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경력개발을 위한 상시 트레이닝 제도도 도입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서비스 전문가 인증과정을 도입하고, 우수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선발해 2주간 CJ 해외 매장 체험 및 현지국가를 경험하는 글로벌 연수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이번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전환을 통해 경조금 지급, 명절 선물 등 복리후생도 강화된다. 각 사별 맞춤형 혜택도 있다. CJ푸드빌은 해당 외식브랜드에서 식사시 35% 할인 혜택을 주며, CJ CGV는 월 10회 한도 CGV 영화 무료 관람 및 매점 50~70% 할인혜택, CJ올리브영은 3개월 근속시마다 CJ 상품권을 지급하고, 일부 외국인고객 다수 매장의 경우 매월 여학수당을 제공한다.

CJ그룹의 이번 발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제도 정착 뿐 아니라, 시간제 직원들이 향후 관리직이나 점장 이상의 매니저급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 출신 점장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많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현재의 시급직에 머무르지 않고 매니저급으로 성장할 것으로 CJ측은 기대하고 있다.

CJ그룹은 이번 직영 아르바이트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전환에 이어, 가맹점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진행해 나가며, 업계 전반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